

# 지역정체성 맥락의 공공디자인 통합체계 연구

- 충북광역도시권의 경관계획과 색채계획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Integral System of Public Design in the Context of Local Identity

- Focusing on the Landscape Plan and Color Plan of Chungbuk Metropolitan Area -

**Author** 송영민 Song, Young-Min / 정회원,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강사

**Abstract** This study puts its purpose on presenting an integral system of representative urban landscapes, public design and colors, in practicing urban design in the context of local identity. An integral design of public design that successfully plans and executes local identity, and changes recognition of integral management of urban design, is suggested as followings.

Firstly, when the catchment area is divided in metropolitan area, it should be reset according to the natural environment condition regardless of administrative area system like city and county. It is the method to classify the metropolitan area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geographical condition, weather condition, soil and vegetation in detail and subclassify it by the visual commonness of natural environ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ccess the urban landscape, public design and urban color from the overall aspect emphasizing the plan for each field and local identity. They should be practiced by the role and category of each field on the basis of consistent design strategy and instruction but the cooperation system is required as a process to reinforce and specify the mutual limit.

Thirdly, the artificial structure is constructed through artificial adjustment depending on the urban formation process and the development time poi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apid urban development, the change speed and the landscape formation of each ag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type of artificial landscape by age and form similarity and separate the area that should be generalized and controlled by entire metropolitan area from the area that should be specialized by basic local government.

**Keywords** 지역정체성, 경관, 경관색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관계획, 색채계획  
Local Identity, Landscape, Scenery Color, Public Design Guidelines, Landscape Plan, Color Pla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요구 및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일련의 도시디자인이 계획,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으로 도시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경관색채계획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에 따른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도시디자인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디자인에서 지향하는 도시의 이미지는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정체성 맥락은 계획의 핵심적 개념이다. 또 지역의 자연발생적 자산이자 공동의 유산으로서 지역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

은 광역자치단체를 주축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동의 단합된 역할이 중요시 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디자인은 기초자치체별로 한정되거나 광역자치체의 도시계획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같은 광역권 내의 대도시부터 소도시까지 공간적 범위와 관리주체만 다를 뿐 유사한 형태의 도시디자인이 반복되고 있다. 또 디자인에 대한 개념적 이해부족으로 지역정체성이 단절되거나 약화되어 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을 위한 지역정체성이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규의 혼란과 중복되는 계획, 상위계획 해석의 혼선, 체계적인 접근의 부재 등이 동반된 결과이다.

도시디자인은 기능적 수요뿐 아니라 지역의 독창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도시의 색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법규 및 시행주체, 그리고 계획 분야별 논의에 있어서 상호 긴밀한 협의체계가 필요하다. 도시의 이미지 구축 및 도시경쟁력의 맥락에서 각 분야별 연계와 통합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확립하고자 하는 광역권의 지역정체성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에서 일관되게 시행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 맥락의 도시디자인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북광역도시권의 도시디자인을 대표하는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그리고 색채계획과 관련한 통합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에 있어서 각 분야와 관리주체 사이에서 지역정체성의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통합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을 접근하기 위하여 지역정체성의 목표가 계획, 실현되는 도시디자인의 연계방법을 연구하고자 함이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에서, 지역정체성의 맥락이 상호연계되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그리고 색채계획이 부합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도시디자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 광역지자체와 청주시, 충주시의 기초지자체 두 곳으로 한정하였다. 두 도시는 충청북도 광역권으로 단일화 되어있고, 또한 인접한 도시라는 지리적 조건을 배경으로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정체성이 형성되는 범위를 최소단위로 설정하여 지역정체성의 맥락을 세밀하게 탐구하고자 함이며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정체성의 요인과 맥락의 의미를 살펴보고, 도시의 경관과 색채가 지역정체성의 맥락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임을 설명하였다. 둘째,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경관계획과 색채계획의 상관관계를 도시디자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셋째,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관련 계획들이 지역정체성의 맥락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연계된 하위계획들이 기초지자체의 도시디자인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넷째, 광역지자체의 실천방향과 함께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색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통합체계 및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 2. 지역정체성의 맥락

### 2.1. 지역정체성 요인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동일성에 의해 형성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이의 개념이다. 지역 간 차이는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조건에 따른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리적 배경과 전통, 역사, 관습과 생활양식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제반요소들의 집합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원천으로 유형요소와 무형요소로 대별된다.

유형요소로서 자연물은 지리적 범위를 한정하며 지역의 토대가 되는 요소로 풍토적 특성인 기후, 생태 등의 자연적 질서에 의해 구체화된 형태로 가시화된다.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고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존재한다. 이에 반해 인공물은 삶의 양식과 역사에 관계되는 조절된 환경으로 구축, 보존, 활용되는 인위적인 구조물이다. 따라서 유형요소는 자연발생적이거나 인공적으로 형성된 물리적인 환경이며 지역공동의 자원이자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유형화된 자원이다.

무형요소인 역사성은 오랜 시간에 의해 형성되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과 현장, 그리고 사건의 주체들로 구성된다. 이는 과거형의 시간축으로서, 역사적 사건의 동시경험과, 도시의 사물이나 장소에 대하여 과거에 경험한 내용이 연상이나 기억으로 개입<sup>1)</sup>된다.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 역시 지역의 자원이며, 역사와 관련한 모든 것이 지역정체성의 요인으로서 유효하다. 활동성은 생활양식과 행위요소로 구분되는데, 지역사회의 구조화된 사상이나 관습, 제도 등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모든 행위는 특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적 질서와 일치된 행동양식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생활양식자원<sup>2)</sup>이고, 생활양식을 비롯한 모든 활동과 결과, 형식 등의 행위요소가 포함된다. 행위는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활동의 소산이며, 고유한 방식으로 규범화된 행동유형으로 표출된다.

유·무형의 자연물, 인공물, 역사성, 활동성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인들이며,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지리적 배경과 삶의 방식에 관련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의 정체성은 지역의 특성에 의해, 지역의 원천적 자원에 의해, 그리고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에 의해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1) 건축·마치나미경관연구회, 도시건축의 경관장조, 조용준 외 역, 기문당, 1998, p.27

2) 송영민,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환경 디자인의 방향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2012, p.101

## 2.2. 도시경관의 맥락

지역정체성의 맥락<sup>3)</sup>은 도시경관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자연경관 뿐 아니라 시간적 범위가 다른 인공건축물의 양식과 색채 등 다양한 경관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정체성과 도시경관의 조합이 일치됨을 의미하며, 디자인과 관련한 경관의 통합된 양상 혹은 연속성으로 나타난다. 연속성은 지역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일관된 체계에 의해 유지, 보존되는 자연물과 인공물의 연계를 말한다. 도시의 자연조건과 역사를 통해 개별적 건축물이 아닌 환경적 연속성<sup>4)</sup>에서 지역의 구성요소와 도시, 경관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관은 자연, 지형, 건축물 등과 함께 지역의 역사, 유산을 공유하고 특정한 형태로 시각화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삶을 영위하므로 경관은 삶의 배경이다. 도시경관은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배열되는 유형적 요소들의 조합과 질서에 의해 존속된다. 도시의 무질서 속에서 변화가 계속되더라도 지역정체성에 기반하는 시각적 질서는 일관되게 유지됨으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영구적인 지역정체성 맥락의 경관이 되는 것이다.

지역정체성의 맥락에서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의 정체성으로부터 보존 혹은 개발해야 할 가치를 찾는다는 의미이다. 이때 지역정체성의 맥락은 각기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접근되며, 최종 결과인 형태나 색채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시각적 질에 중점을 두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관은 지역의 시각적 세부구성 요소들을 반영하여 디자인 형상의 시각적 속성을 중심<sup>5)</sup>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과 같은 맥락이다.

## 2.3. 경관색채의 맥락

도시경관이란, 시각에 의하여 포착되는 공간에서 형상, 색채, 질감, 분위기 등의 시각적 사상이라고 정의되는데, 이것은 지역의 풍토, 역사, 전통, 개성을 살린다는 관점<sup>6)</sup>으로서 지역정체성의 맥락이다. 도시의 색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기후, 지형,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색이 출현하고, 지역마다 각기 다른 색으로 정착된다. 랭카스터(M. Lancaster)는 색채가, 연속되는 역사적 문화의 증거를 밝혀주며 새로운 사물과 건축물을 인지시켜주고, 색상과 그 색상의 전통까지도 알려 준다<sup>7)</sup>고 하였다. 이는 색채가 지역의 역사적 시간과 지리적 특성에 의한 경관과 연속됨을 의미한다. 색채는 지역의 기후, 풍토, 지

형, 계절 등의 자연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이것이 도시경관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관색채는 지리적·문화적 특징과 관련되며, 색채와 풍토의 관계는 어떤 지역의 색채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거주하는 사람들의 색채에 관한 의식과 자연조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색채가 지역정체성과 조화되어야 하는데, 지역만의 시각적 환경으로서 조화되는 경관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온화하고 차분한 색채경관이 일상생활과 중요하게 관련되며,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온 인공적 경관에 대한 경각심과 반성<sup>8)</sup>이 강조된다. 특히 무질서한 간판과 색채의 관계성에서, 도시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색채환경은 결국 풍경으로서 정리감이 부족하게 되고 결여된 공간이 된다<sup>9)</sup>다. 생활의 환경이자 시각적 환경인 도시의 색채는 다양하지만 질서와 조화의 범칙에 의해 조합되면 도시경관의 풍요로움과 함께 분명한 지역의 색을 만든다. 결국 색채는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역사에 의해 차별화되고, 지역에서 형성된 관습과 경험에 따라 상징과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 3. 도시디자인의 시행체계

### 3.1. 도시디자인 분야별 체계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그리고 색채계획 등 도시디자인 시행체계들은 법규 및 법령, 시행주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법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 ‘경관법’에 의한 기본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한 공공디자인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경관색채계획 등이 있다. 관련법들은 범위적 차이로부터 위계를 가지는데, 국계법에 의한 기본경관계획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상위법이므로 공공디자인과 경관색채는 하위법이 된다.

<표 1> 도시디자인의 주요 법·제도

	국계법	경관법	공공디자인 조례	경관색채 조례
구분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경관계획 [특정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관색채 계획 경관색채 가이드라인

#### (1) 경관계획

경관법에 근거한 기본경관계획은 법정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상호보완적인 지침으로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범위의 공적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적영역이면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계획이지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3) 맥락(context)의 어원은 ‘con’으로 ‘같다’라는 뜻의 라틴어와 영어 ‘textere’의 합성어로, 특정한 배경에 관계하는 자연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이 되는 조건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4) Brent C. Brolin, 맥락적 건축, 박두연 역, 세진사, 1996, p.12

5) Ibid., p.6

6) 박동서, 도시의 색·건축의 색, 기문당, 1999, p.119

7) Joy Monice Malnar and Frank Vodvarka, Sensory Design, Univ of Minnesota Press, 2004, p.224

8) 요시다신고, 경관색채의 이론과 실천, 이석현 역, 미세음, 2008, p.74

9) 요시다신고, 도시의 색을 만들자, 이석현 역, 미세음, 2008, p.11

하는 강제성은 없으며 해당지자체의 도시디자인 및 디자인정책의 우선순위, 재정지원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경관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책방향 및 기본구상,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계획의 목표와 경관권역, 축, 거점 등의 경관관리 단위를 설정하여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경관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가져야 하며, 경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과 다를 경우에는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표 2> 기본경관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표 설정	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방향 제시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에 관한 사항
전략 도출	경관형성의 전망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권역 설정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행정체계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단계에 관한 사항

## (2) 공공디자인계획

공공디자인<sup>10)</sup> 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서 도시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 및 기준, 세부지침 등을 말한다. 도시의 물리적인 대상을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술한다. 디자인 계획부터 설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들이 지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이것은 디자인 대상을 분야별, 요소별로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므로 공공디자인의 심의, 발주, 실행,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판단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표 3>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표 설정	공공디자인의 목적 및 기본원칙, 기본방향 설정
방향 및 전략	공공디자인의 세부지침 마련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분야별·권역별 디자인에 관한 사항
행정 및 추진	공공디자인의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계획의 구성	공공건축물, 시설물 등의 요소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 대상별 디자인·설치·운영·관리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체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 (3) 경관색채계획

경관색채계획은 각 나라와 각 지역, 그리고 각각의 도시가 저마다 특유한 빛깔의 색상들을 갖고 있다<sup>11)</sup>는 색

10)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에서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적영역의 도시공간, 시설, 매체 등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계획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입장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는 공공디자인의 시행주체가 공공기관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은 지자체별로 시행되며 도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삶의 질적 가치와 도시의 시각적 질에 대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1) 장 필립 랑클로·도미니크 랑클로, 환경·건축·그리고 색, 이승희·김

채지리학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자연경관과 문화, 그에 따른 인공경관적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색을 추출하고 그 적용 방법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나 기후, 역사적 배경, 풍토, 관습, 문화 등으로부터 가시화되는 색채를 파악하고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경관색채계획의 범주에서 정립된 기본목표 및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직접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자연환경에서 추출한 색채뿐만 아니라, 인공경관에서 도출한 기초색, 대표색, 상징색 등의 정량적 제시를 포함한다. 즉 색상, 명도, 채도로써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적용대상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 3.4. 도시디자인 분야별 상관관계 및 분석틀

공공디자인은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자원에 토대하여 지역정체성을 디자인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는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공공영역을 구성하는 대상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관계획의 대상 역시 공공디자인의 대상과 중복되는데, 자연, 인공 요소 및 생활양식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지역특성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지역정체성이 가시화되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을 아우르는 포괄적 계획의 개념이다. 따라서 경관계획은 자연적, 지리적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의 생활방식, 전통, 관습 등 지역고유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아우르는 총체적 관점의 접근이라 하겠다. 도시에서 색채는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과 도시의 역사, 행위와 생활이 연속되어 생성된다. 따라서 도시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이미 지역고유의 색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 및 경관계획과 필연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공공디자인과 경관계획, 그리고 경관색채는 각각의 전문분야이면서도 지역정체성의 맥락에서 공적영역의 대상을 시각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이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자치적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권은 물론 기초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경관계획의 하위체계인 공공디자인계획과 경관색채계획은 선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디자인에서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계획, 그리고 경관색채계획은 분야별 특성을 가지면서 지역정체성 맥락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도시디자인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을 토대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디자인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광역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살

정락·이선경 역, 미진사, 2009, p.5

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해당 기초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경관색채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조사한다. 이것으로 지역정체성 맥락의 도시디자인 체계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계획, 그리고 경관색채계획을 상호교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표 4> 도시디자인 체계 분석틀

분 야	도시디자인 분야별 조사 및 분석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경관색채	광역도시권의 경관기본계획	기초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
	↓	↓
	광역도시권의 공공디자인계획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계획
	↓	↓
	기초지자체의 경관색채계획 및 가이드라인	
	↓	
	광역도시권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 통합가능성 도출	

## 4. 광역도시권 도시디자인 사례

### 4.1. 사례도시의 선정

충북광역도시권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계획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상위체계인 충청북도의 경관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그리고 충북 관할지역인 청주시와 충주시의 경관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경관색채계획을 종합하였다. 각각의 지자체가 지향하는 목표, 방향,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항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위 도시디자인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정체성의 맥락이 하위계획에 반영되는 방식을 비교<sup>12)</sup>하여, 통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사례 도시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로 광역지자체에서 도시디자인을 계획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후속된 경우이다. 또한 상위계획인 경관기본계획과 하위계획인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 경관색채계획이 순차적으로 계획<sup>13)</sup>되어 비교, 분석이 용이한 지자체의 사례이다.

### 4.2. 광역권의 도시디자인 계획

충청북도는 충북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거시적 시각의 틀로서 광역권의 장기 로드맵을 계획하고자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각 도시의 기본계획을 시각적으로 제어하고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각각의 계획을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하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획에는 경관권역

별 계획 및 자연경관, 인공경관, 혼합경관, 경관시설물 계획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권 내 도시들의 기본계획을 연결하는 하위계획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거시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경관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요소별 실천전략의 수립을 중심으로 계획을 제안하였다.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방향에 대한 중심어를 추출하고, 충청북도의 12개 시·군의 특성 및 정책방향을 조사하여 충청북도의 통합디자인 기본방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광역적인 범위에서 충청북도 전체를 분석하고 계획한 경관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도시디자인 진행방식으로 이해된다. 또한 포괄적인 경관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체계로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공공디자인 계획은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품질기준이며,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계획은 각각 3개 권역으로 세분화된 중부권의 청주시와 북부권의 충주시를 권역별 계획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실질적인 적용에는 취약하다. 이는 각각의 계획에 있어서, 하위계획의 필연적 개입과 연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 4.3. 도시별 도시디자인계획 종합

청주시는 「청주시 경관계획」, 「청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청주시 색채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였다. 공공디자인의 기본구상에서 청주시는 청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실현을 위해 ‘경관계획과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 방향과 목표설정’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 색채계획에서는 과업의 필요성 항목에서 ‘청주시 특정경관계획의 일환으로 특화계획’이며, 이는 ‘청주시의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색채계획임을 분명히 하였다. 관련법규 및 계획에서는 상위경관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자 한다고 하였다.

충주시는 「충주시 경관기본계획」과 「충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친환경 색채 및 도시색채문화 정립을 위한 전략 수립」을 수행하였다. 특히 공공디자인계획에서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기반으로, ‘도시경관 관련계획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충주시 경관현황자료와 가이드라인 접근체계’를 다루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에서는 ‘충주시 상위 관련계획과의 통합적 연관 및 위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합성을 유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고

12)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색채계획의 비교는 각각의 보고서 요약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며,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표 5, 6, 7>의 종합분석은 계획의 정확성 및 정합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니며, 인용된 내용들이 연속되어 실천적인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준거가 될 수 없다.

13) 공공디자인의 경우 충북, 청주시, 충주시가 2009년에 동시수행되었음을 감안하여, 공공디자인간의 횡적비교보다 상위계획인 경관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하였다. 이러한 도시디자인계획을 중심으로 광역권의 충청북도로부터 청주시와 충주시가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전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주시와 충주시의 도시디자인 분야별 세부 디자인 계획은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청주시 도시디자인 계획

	[경관계획] 청주시 경관계획(2009)	[공공디자인계획] 청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09)	[색채계획] 청주시 색채경관계획 수립용역(2013)	종합
권역·유형	[권역별 경관계획] -자연네트워크 권역 -생태환경보전권역 -진입상징권역 -중심권역1 -중심권역2 -도시녹지권역	[부문] -공공공간 부문 -공공시설물 부문 -공공건축물 부문 -공공시각매체 부문 -옥외광고물 부문	[6개 권역별 주제] -중심권역1(역사, 전통의 문화경관) -중심권역2(현대적인 부도심 경관) -자연네트워크권역(농경지, 산림, 미호천) -생태환경보전권역(자연생태, 생태환경) -진입상징권역(랜드마크경관) -도시녹지권역(녹지, 하천, 캠퍼스, 녹지)	경관계획의 권역 구분은 색채계획에서 정확히 일치되고 6개 권역을 상세한 주제로 구체화하여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위계획을 토대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공공디자인계획은 권역과 무관하게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상위계획인 경관계획, 하위계획인 색채계획과 상충된다.
전략·목표	[계획의 목적] -도시경관자원으로 기본방향 설정 -경관특성을 살리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형성, 청주시 정체성 확립 [경관미래상] -살맛나고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살기좋은 안전·건강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역사문화도시 -생태환경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실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의 가치 향상 -경관계획과 어우러지는 방향, 목표설정 -실질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 [기본구상]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 활동의 여유, 장소의 여유	[색채계획의 목표] -경관형성을 위해 주요가로와 거점, 권역의 특징에 맞도록 개성적인 색채의 적용방안 및 공간별, 용도별,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구체적인 색채계획의 방안을 통해 경관 이미지의 통일과 조화를 조율 -경관이미지 향상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경관 구축	경관계획은 경관자원의 활용과 경관특성을 강조하였고, 색채계획은 경관계획의 맥락에서 경관이미지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공공디자인계획은 '경관계획과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 방향과 목표설정'이라고 언명했을 뿐, 전략 및 목표에서는 경관계획과의 연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방향	[기본목표]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만들기(수려한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과 조화 도모)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도시 만들기(청주시만의 특색을 담은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경관 형성 및 자원간의 상호 연계) -경관으로 관광 상품화 되는 경관도시 만들기(차별화된 도시경관 창출)	[어유있는 공공디자인] -충청도 고유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마음의 편안함) -교육의 도시(지리적 장소성) -직지의 도시(창조적 활동의 어유) -양반의 고장(은유한 성격의 보유함) -충절의 고장(역사적 인물 다수 보유) -수려한 자연경관(자연의 맑은 공기, 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의 거리 조성) -문화의 도시(역사적 특성을 간직한)	[기본방향] -권역, 경관, 건축물의 세부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구축 -3대가로 색채와 조화되는 효과적인 색채경관 창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특징 있는 색채공간 조성 -가로와 수변 및 녹지축을 따라 색채의 연속성과 변화 유도로 녹색수도 이미지 구축	경관계획의 목표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경관, 문화, 역사, 지역자원과의 상호연계로서, 차별화된 경관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공공디자인계획에서는 디자인 개념설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지역정체성자원 중 무형적 요인에 집중하였다. 색채계획은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경관계획의 목표인 녹색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표 6> 충주시 도시디자인 계획

	[경관계획] 충주시 경관기본계획(2008)	[공공디자인계획] 충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2009)	[색채계획] 친환경 색채 및 도시색채문화 정립을 위한 전략 수립(2012)	종합
권역·유형	[5개 권역 구분] -충주시내권 -중앙탑 및 앙성권 -충주호권 -수안보권 -신니 및 주덕권 [경관특화계획] -공공디자인계획, 색채계획	[5개 권역별 주제] -충주시내권, 중앙탑-앙성권, 충주호권, 수안보권, 주덕이유권 [4개 키워드로 4개권역으로 재구성] -중원역사, 문화도시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 -국제적 관광, 휴양도시 -생태환경도시	[건축물 색채] -주거용도(전 지역 공통) -업무, 상업, 기타 용도 (녹지, 도심, 역사문화관광, 수변지역) -상업용도(산업단지) [시설물 색채] -공공시설물 -사인시설물	경관계획에서 권역별 구분은 경관적 특성이 일관되게 보이는 일정한 지역을 권역으로 설정, 행정구역과 경관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의 경관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디자인계획은 이를 4개의 키워드로 재구성, 발전시켰으나 색채계획에서는 색채계획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전략·목표	[실천적 경관형성 및 관리계획을 통한 지역특성화] -도시이미지 및 정체성 설정 -장소만들기 및 도시활성화와 연계 -도시경관의 미래상 설정 -경관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경관형성 체계 확립 -경관인식에 대한 제고 -자연적 특징을 고려한 보전, 조화	[계획의 목표 및 성과] -자연환경, 역사, 문화, 관광 자원 활용 -정체성 확립, 지역경제발전, 애함성고취 [과업의 목적] -도시경관 구성요소를 발굴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실행계획 수립 -충주시만의 이미지 정체성 개발 -차별화된 디자인 명품도시 구축	[충주색 정립의 목표] -경관자원, 역사와 문화적 자원 및 특성 반영 -도시 아이덴티티를 구축(충주색 정립) -공공시설물의 통합성을 높이는 색채구축 -충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 -문화경관도시로서의 위상확립 [충주색 개발을 위한 색채자원 확보] -자연환경, 인공인문환경, 문화인문환경, 관련콘텐츠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계획은 실천적 경관형성과 미래상으로 도시이미지 및 정체성을 설정하고, 자연환경,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색채역시 경관자원, 역사와 문화적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충주색을 정립하고, 공공시설물의 통합성을 높이는 색채를 제시하였다. 특히 충주색 개발을 위한 색채자원을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본방향	[Riverside Leisure City] -충주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인 충주댐과 남한강을 중심으로 휴양의 도시 모습을 강조함 - X자형 블루 네트워크형성, 휴양도시 [Historic Modern City]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충주시의 장점을 살리면서 성장하는 도시모습 강조 -중원문화의 도시, 성장의 도시	[컨셉] 향유, 모두가 함께하는 충주 -언제나 즐거운 도시 -누구나 공유하는 도시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디자인 명품도시 충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타입] -공공형(기본형) -테마형(역사, 문화, 관광자원 활용형)	[기본원칙] -인공색채 환경을 위한 권장색채 제시 -녹지와 수변경관을 고려한 색채디자인 -자연경관자원의 보존, 향유(친환경적) -기존 색채경관 존중(차별화된 색채계획) -연속성, 질서감(인접전물조화) -강조를 위한 색과 절제해야 할 색 분류 -사용대상 및 면적에 따른 색 사용 -표준화된 색채 제안	경관계획과 색채계획은 충주의 대표적인 경관인 수변경관과 녹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등 풍부한 자연경관자원의 보존과 향유를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공공디자인 계획에서는 디자인개념으로서 '향유'를 통해 디자인도시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였다.

#### 4.4. 충북광역도시권 공공디자인의 지역정체성 맥락 분석

<표 7>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공공디자인의 지역정체성 맥락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①	②	③	④	⑤	총 합	
지역 자원	-청풍명월의 고장 -생태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 -친환경적 접근(컨셉에 반영) -자연지형을 최대한 반영한 공간 -풍부한 자연경관을 활용	-청주시만의 고유한 자연환경 -자연과 인간친화적 그린디자인 -바람길,물길(자연의 흐름에 순응) -기존의 자연환경 체계를 수용 -청주시의 자연환경과 이미지반영 -청주시만의 고유한 자연환경	-농촌지역 특유의 청정함과 수려한 자연경관 -그린디자인 구현(자연경관) -천혜의 관광자원(생태 환경도시) -자연지형을 고려한 공공공간 -수변지역 특성 고려	●						청풍명월, 생태문화도시, 친환경경, 자연지형, 자연경관/자연환경, 그린디자인, 바람길, 물길/청정함, 자연경관, 그린디자인, 생태 환경도시, 자연지형, 수변지역 특성
	-상업, 업무, 주거지역의 특성반영	-가로 및 건물, 시설물의 연계 -주변 상가 및 시설물과 동화유도	-상업, 주거, 공업지역의 특성고려 -시가가지내 녹지시설과 연계 검토		●				상업, 업무, 주거지역/가로 및 건물, 시설물, 상가/상업, 주거, 공업지역	
	-사적지 공공디자인 통일성 확보	-청주의 역사적 흐름과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는 디자인	-역사, 문화, 관광자원(활용, 보존) 중심의 통합 연계 -문화 어메니티 자원의 풍부함				●			사적지/역사적 흐름, 문화적 유산/역사, 문화, 관광자원 문화 어메니티
경관 맥락	-자연과의 조화(녹지확보,연계) -풍요로운 자연경관적 특성 반영 -자연경관자원 중심의 관광지 -지역적 특성과 자연경관을 반영	-교육의 도시(지리적 장소성) -수려한 자연경관(자연의 맑은 공기, 보행자 및 자전거 거리 조성) -자연환경을 수용하는 디자인	-천혜의 관광자원, 역사, 문화도시 -충주호 수변공간 적극 활용 -자연스러운 경관 조성	●						자연, 녹지확보, 자연경관/맑은 공기, 자연경관, 자연환경/천혜의 관광자원, 충주호
	-역사문화경관의 통합, 연계	-문화의 도시(역사적 특성 간직) -충질의 고장(역사적 인물 보유)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고려 -역사적 가치를 보존			●	●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의 통합 충질, 역사적 인물	
	-스카이라인 형성 및 색채 적용 -자연환경을 고려(조화되는 색채) -주변경관과 조화(자연소재 적용) -식생, 풍토 등을 고려한 색채선정 -경관과 건축미관을 해치지 않는 색채 및 재질 선정 -건축색을 고려(자극적 색채 지양) -사적자원과 인접(조화되는 색채)	-세계질 변화되는 식재의 색채고려(계절감을 반영하여 계획) -식재색상과 계절별 색상변화 예측 -식재의 색상에 의한 권역구분	-녹지 등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계획 수립	●						자연환경, 자연소재, 식생, 풍토/세계질, 식재/녹지
색채 맥락	-광고물 배경색 고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 사용 -시설물과 조화 고려(동일한 색)	-광고물의 배경색 고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 사용 -시설물과 조화 고려(동일한 색)				●			건축미관, 건축색/건물 사적자원과 인접 광고물, 시설물	
	-충북의 정체성과 특성 정의 -지역 또는 권역별 차별화 연출 -확립된 정체성에 기반한 연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 -명확한 지역적 정체성 구축 -테마와 정체성이 있는 디자인 -주요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자연경관 요소와의 이질감 해소 -주변경관 이미지의 반영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 구체화 -주변경관과의 색채조화 -주변건축 또는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되는 색채 또는 재질 -주변경관 및 시설물의 색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되게 계획	-청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 -청주의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청주의 정체성을 강조 -청주의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확충 -경관계획과 어우러지는 디자인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수준 높은 경관형성에 기여 -조화로운 경관향출 -문화경관과 조화로운 공간형성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계획 -지역특성, 주변경관, 건물외벽색을 고려한 색채와 풍토색을 사용	-미래지향적 능동적 정체성 도출 -정체성 확립(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충주시만의 정체성) -충주다움의 세련된 이미지 -이미지 정체성 개발 -도시경관 구성요소 발굴 -지역성을 지닌 경관자원요소 -경관의 특징과 환경의 조화 -자연과 조화를 중시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주변경관과의 관계를 도모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적용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건축선의 정렬로 조화로운 경관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는 지역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지역정체성의 확립, 지역자원의 특성반영, 그리고 차별화이다. 여기서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이 도출되는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으로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을 차별화하는 계기로서의 공공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에서 반복되는 지역정체성의 맥락은 조화와 연계, 그리고 관계로 함축된다.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는 공통적으로 자연경관 및 주변건축물 등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화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주변경관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뿐 아니라 인공경관 등 전체적인 경관요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지역정체성 요인 및 경관유형] ① 자연물·자연경관, ② 인공물·인공경관, ③ 혼합경관, ④ 경관시설물, ⑤ 역사성·활동성

지역자원의 측면에서 충청북도는 지역정체성 요인 및 경관유형<sup>14)</sup> 중 청풍명월, 생태문화도시 등을 지향하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하고자 자연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 역시 그린 디자인, 바람길, 물길, 자연환경, 청정함과 수려함, 천혜의, 자연지형, 수변지역 등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자연자

원을 반영, 고려, 활용할 것을 반복하고 있다. 경관의 맥락에서 충청북도는 자연과의 조화, 풍요로운 자연경관, 자연경관자원 등 자연경관과의 연계를 중시하였다. 청주시와 충주시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 천혜의 관광자원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자원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관색채의 맥락에서 충청북도는 식생, 풍토 등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추출된 색을 고려하여 색채가 선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청주시는 식재부문에서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물의 색을 밀도있게 다루었고, 충주시는 경관요소별 색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녹지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지역정체성의 방향은 지역정체성

14) 지역정체성 요인 및 경관유형은 2장 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① 자연물, ② 인공물, ⑤ 역사성, 활동성이 지역정체성의 필수요인이다. 그리고 4장 2절에서 충청북도의 경관기본계획은 ① 자연경관, ② 인공경관, ③ 혼합경관, ④ 경관시설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지표는 ① 자연물에 의한 자연경관, ② 인공물에 의한 인공경관, ③ 혼합경관, ④ 경관시설물, ⑤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성의 다섯 가지로 구분, 적용하였다.

의 확립, 지역자원의 특성 반영, 그리고 타지역과의 차별화이다. 이를 위해 지역정체성의 맥락은 자연경관 및 주변건축물 등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화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주변경관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뿐 아니라 인공경관 등 전체적인 경관요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 맥락의 유기적인 관계성과 함께 광역권과 연계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색채계획에 있어서 통합의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관과 밀착된 공공디자인의 통합체계 방안에 대한 실천과제를 말하고자 한다. 공공디자인 수행과정에서 광역권과 지역권에서 개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의 통합가능성을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의 도시디자인계획 사례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통합관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경관과 색채의 맥락에서 자연자원을 토대로 계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주시와 충주시는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관할의 지방도시이며 서로 인접해있다. 여기에서 광역권내의 지리적 접근성에 의한 통합가능성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내륙지방 대부분이 지형적, 기후적, 문화적 유사성을 가짐으로써 지역의 자연자원 및 자연적 풍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군의 행정구역 체계와 상관없이 자연환경적 조건에 따라 재설정하여야 한다. 광역권 내의 지리적 상황이나 기후적 요인, 토양, 식생 등의 분포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대분류한다음, 자연환경의 가시적 공통성을 중심으로 중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기초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색채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계획전반에서 지역정체성을 반복,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 및 지역의 도시디자인에서 지역정체성 맥락의 공통된 지향점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은, 계획의 과정에서 접근되는 방향성과 그 산출물이 통합,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순차적 계획수행과 그에 따른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경관색채는 각 분야별 계획과 함께 지역정체성의 맥락을 중시하는 총체적 차원으로 접근된다. 일관된 디자인 전략과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역할과 범주에 따라 실천하되,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협업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는 분야별 입장과 관계성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도시디자인의 순차적, 동시적 수행이다. 상위 계획인 경관계획 시 하위계획 관계자의 참여 및 공동진

행으로, 후속되는 계획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정의 협업과 조율 및 제어는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넘어 도시의 공간을 창조하는 공공적 디자인의 역할로서 필연적인 과정이다.

셋째, 광역도시권과 지역별 계획에서 주변경관과의 관계와 연계, 그리고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중심권역에서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근경의 경관을 이루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의 주요대상이 된다. 인공건축물은 자연자원과 달리, 도시의 형성과정과 개발시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되어 구축된다. 따라서 도시의 급속한 개발 및 변화의 속도, 시기에 따른 경관형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점 역시 광역권에서 권역구분 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공간적 구성에 따라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경관의 유형을 시대별, 형태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광역권 전체에서 통합, 관리해야 할 구역과 기초지자체별로 특화해야 할 구역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공공디자인은 공통적 규범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계획의 통합은 지역정체성이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되는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의 동시다발적 계획에 의한 지역정체성의 혼란과 불일치를 극복하고자 범용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광역권에서는 공공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정체성 맥락에서 도시경관과 연계된 공공디자인, 경관색채의 통합 및 통합관리체계가 도시디자인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보다 실천적인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과제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건축·마치나미경관연구회, 도시건축의 경관창조, 조용준 외 역, 기문당, 1998
2. 박돈서, 도시의 색·건축의 색, 기문당, 1999
3. Brent C. Brolin, 맥락적 건축, 박두연 역, 세진사, 1996
4. 요시다신고, 경관색채의 이론과 실천, 이석현 역, 미세움, 2008
5. 요시다신고, 도시의 색을 만들자, 이석현 역, 미세움, 2008
6. 장 필립 랑클로·도미니크 랑클로, 환경·건축·그리고 색, 이승희·김정락·이선정 역, 미진사, 2009
7. Joy Monice Malnar and Frank Vodvarka, Sensory Design, Univ. of Minnesota Press, 2004
8. 송영민,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환경 디자인의 방향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2012
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청주시청 <http://www.cjcity.net>
11. 충주시청 <http://www.cj100.net>
12. 충청북도 <http://www.cb21.net>

[논문접수 : 2014. 08. 27]  
 [1차 심사 : 2014. 09. 19]  
 [2차 심사 : 2014. 09. 23]  
 [게재확정 : 2014. 09. 29]